

I. 시작하는 말

믿음은 감사하지 못할 이유와 조건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했습니다.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이끌어 가는 것은 감사의 태도였습니다.

II. 중심 말씀

1. 감사는 선택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애쓰고 노력했지만 성령이 그들을 막아서도 다른곳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바울과 실라였지만 그들이 다다른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주변사람들에 의해 고발당해 관계성이 무너진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분명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불평하기보다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눔 질문)

2. 감사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힘든일이 생기면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계속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 사람의 습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 새벽에 홀로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죽을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는 습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듭니다.

나눔 질문)

3. 감사에는 바라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에도 바울은 그 옥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중요했습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매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해주시킵니다.

나눔 질문)

III. 정리하는 말

바라봄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의 습관을 들임으로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찬202)

- 1)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다
- 2)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댄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 3)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 4)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 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 5)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후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